



제1회

HDI 인간경영대상 시상식

2015년 12월 17일(목) 18:00~19:00

노보텔엠배서더 2층 하모니홀

인사의 글 | Message



장 만 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한 영 섭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인간의 무한한 능력은 교육과 개발을 통해 계발되어진다는 확고한 신념아래 75년에 세워진 교육기관 인간개발연구원은 40주년이 된 2015년부터 새로운 100년 미래를 위해 인간경영의 모범적인 실천사례를 갖는 우수한 기업, 기관의 경영자를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업, 산업계는 물론 국가 전반적으로 훌륭한 경영자가 배출되고, 그러한 경영자로 하여금 더욱 아름다운 기업문화를 만들어 감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리더와 기업발굴을 해나가겠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인간중심의 사회와 조직을 만들어 나가며 그 사례를 통해 우리 모두가 배우고자 신선했던 인간경영대상에 회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5. 12. 17.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장 만 기**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한 영 섭**



심사총평 | Commentary

인간개발연구원이 창립 40주년 맞이한 올해 『인간경영대상』을 제정 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각종 시상식이 있고 기업과 산업을 일군 기업가, 경영자들에게 외우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시상제도가 있지만 『人間』의 단어를 넣은 상은 처음이다.

『인간개발』을 모토로 40년간 세월 속에서 경영자들과 군, 경, 지방 자치 군 소재지 등 교육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까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지역개발과 기업발전에 기여한 『인간개발연구원』이 이제 그분들에게 상을 드림으로써 사회의 평가를 받게 하고 치하하는 시간이 될 것 같다.



이 금 룡
코글로닷컴 회장

금번 심사위원장으로, 3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하면서 이제 우리기업도 『직원』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사회와 조화되고자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알게 되었다. 기업가(경영자)만 행복하고 모든 것을 누린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직원과 소비자와 함께 행복하고자 하는 기업, 경영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직시할 수 있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직원들과 소비자가 함께 소통하고 격려하는 데서 나오는 것 같다.

이번 심사는 그러한 의미에서 대형기업 위주에서 벗어나 작더라도 경영자가 그러한 의지와 철학을 갖고 경영하는 분들을 찾았다. 인간개발연구원 회원기업 속에는 그러한 대상 기업이 많아서 회원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추천 받은 기업, 경영자 중에서 대상을 선발해내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지만, 사회 공헌도와 봉사, 직원 교육에 보다 더 정성껏 열정을 갖고 있는 경영자와 복지와 인재 양성에 특별한 철학을 갖고 구성원과 사회와 상생을 해나가는 경영자를 선발하려고 노력하였다.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치고도 멀리 안동에서 젊은이들과 기업경영자들에게 우리의 고유전통 예절과 선비철학 사상을 가르치고 계시는 분도 그 뜻을 기여 특별상으로 드리게 되었다. 내년에는 더욱 숨어있는 착한 경영자를 선발해내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2015. 12. 17.

심사위원장 이 금 룡
코글로닷컴 회장

회순

| Meeting procedure

■ 국민의례

■ 개회인사 - 장만기 |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 축 사 - 이현재 | 전 국무총리

■ 심사총평 - 이금룡 | 코글로닷컴 회장

■ 시상식

- 종합대상 : 구자관 | 삼구아이엔씨 책임대표사원
- 상생경영부문 : 윤동한 | 한국콜마 대표이사 회장
- 사회공헌부문 : 최규복 | 유한김벌리 대표이사 사장
- 인재경영부문 : 이형우 | 마이다스아이티 대표이사 사장
- 사회봉사부문 : 두상달 | 가정문화원 이사장
- 교육부문 : 김영철 | 동화세상에듀코 대표이사 사장
- 특별상 : 김병일 |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

■ 폐회

| 사회 : 정찬우 아나운서

심사위원

| Examiner

■ 명단

- 위원장 : 이금룡 | 코글로닷컴 회장
- 부위원장 : 가재산 | 피플스그룹 이사장
구건서 | 네비게이터십 대표
김남민 | POP컨설팅 대표
김선화 | 한국가족기업연구소 대표
류랑도 | ㈜더퍼포먼스 대표
이수경 | 가정행복코칭센터 대표

종합대상

구 자 관 | 삼구아이엔씨 책임대표사원

-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협의회 회장(현)
-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고위지도자과정 총동문회장
- (사)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11대 회장
- 한국카네기클럽 총동문회 대표



❖ 책임대표사원의 직함으로 청소경비용역 업무의 직원들을 작은 것들도 진심으로 예우하며 정직원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불황기에도 노력하는 책임기업

❖ 기업의 이익은 근로자들이 만들어준다는 철학으로 주식의 절반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이익을 공유하고 스스로는 검소한 삶을 실천하는 서번트 리더십의 롤모델

심사평

‘삼구아이엔씨’의 삼구(三具)는 신용, 사람, 휴머니티의 3가지가 사업경영의 핵심이라는 창업이념이 담겨 있다. ‘대표책임사원’이라는 직함도 사원들의 실수는 대표책임사원이 책임질 테니 그런 걱정 접어두고 일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의미다.

“기업이 이익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이익을 만들어 내는 것은 바로 근로자들이다. 때문에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바로 근로자들을 신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삼구아이엔씨 구자관 대표책임사원의 소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대하며, 근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경영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한다.

(사)한국HR서비스산업협회의 회장도 맡고 있는 구자관 대표책임사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근로자보호 클린기업 인증제를 시행하여 신뢰받는 기업의 조건으로 직원고용의 안정을 목표로 하였다. 평소에도 청소와 경비사업의 특성상 계약직이 많은 업종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19,000명의 직원을 정직원으로 예우하고 5억원의 비용이 들지만 모두 명함을 제공하며, 책임대표사원이라는 권한은 없고 무한 책임만 지는 직함을 사용.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은 청소하시는 분, 조리하시는 분, 냉·난방기 수리하시는 분 등 여사님, 선생님의 호칭으로 직원을 귀하게 섬기는 철학은 다른 경영자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61세, 남들은 은퇴하는 환갑이라는 나이에 대학 진학을 하고, 68세에 석사학위를 받은 것도 정년으로 회사를 떠나는 분들에 대한 자극이면서 조그마한 보답이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지만 ‘희망’이라는 끈을 놓지 않고 신문팔이, 구두닦이 등을 하면서도 책을 읽으며 ‘꿈’을 포기하지 않은 ‘열정’이 인생에 대한 ‘예의’라는 것을 온 몸으로 보여준다.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권위주의를 앞세우기보다 소통과 배려를 강조하는 경영 스타일로 회사 주식의 47%를 직원들이 소유하도록 직원에게 주식을 상당 부분 나눠줬다. 직원 중에 형제나 자매, 일가친척이나 친구 없이 중역들은 다 공채 사원 출신이다. 말로는 쉽지만 실천이 힘든 구자관 대표책임사원의 경영 철학은 공공기관 등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인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다.

내비게이터십 대표 구 건 서

최 규 복 |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 숭실대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 경영대학원 졸업(마케팅 및 국제경영)
- Kimberly - Clark 북아시아 유아용품사업본부장
- 유한킴벌리 유아·아동용품사업 총괄 부사장
- UN Global Compact Korea Network 이사
- 한국여성재단 미래포럼 공동대표
- 가족친화포럼 공동대표
- (사)생명의숲 국민운동 이사



❖ 사회문제와 비즈니스 기회를 동시에 창출하는 사회공헌의 가장 선진적인 롤모델을 보여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장수기업

❖ 기후변화를 예방하는 숲가꾸기부터 액티브 시니어캠페인까지 인류를 위한 프로젝트를 지속성을 가지고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을 위한 가치추구

심사평

지난 45년간 유한킴벌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 유한킴벌리는 존경받는 장수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인간존중의 기업문화를 만들어나갔다.

유한킴벌리는 숲가꾸기 캠페인, 직원들이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가족친화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가장 바람직하게 여기는 책임있는 경영과 사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령화문제 해결 및 액티브 시니어 캠페인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이윤을 창출하는 더욱 진화된 모델로 발전해 가는 사회공헌에서도 가장 선진적인 롤모델이다.

한국가족기업연구소 소장 김 선 화

| 사회봉사부문 |

두 상 달 | 가정문화원 이사장

- 고려대학교 경제과
- 고려대 대학원 이론경제학 석사
- 칠성산업(주) 대표이사
- 울릉심층수(주) 회장
- 기아대책기구(I.D.I) 이사장
- CBMC(한국기독교실업인회) 회장
- (주)디케이 대표이사



- ❖ 한국사회에서 무너지가는 가정회복을 위한 교육, 그리고 교도소 재소자 교육 등 봉사교육을 부부가 평생을 함께해 옴.
- ❖ 기아대책기구 이사장과 CBMC 중앙회장을 맡아서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봉사로서 서번트 리더십의 모델이 되어주심.

심사평

무역과 건축업을 하는 칠성산업(주)과 (주)디케이 대표이사이기도 한 두상달 이사장은 기업경영자이면서도 부인 김영숙 원장과 함께 90년 가정문화원을 창립하여 워커홀릭 가장들이 많은 한국사회에서 무너지가는 가정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제 CCC 사역의 일환으로 89년 시작했던 가정사역(Family Ministry)의 소명을 다하면서 아픈 가정의 회복, 교도소 재소자 교육 등 수많은 봉사활동을 맥을 이어갔다.

중동선교회 이사장,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 한국CBMC중앙회장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 곳곳의 아픈 상처들과 약한 자들을 어루만지는 역할을 해내고 있으며 특히 (재)국제기아대책기구 이사장으로서 세계각국의 기아들을 위한 일들을 묵묵히 수행하며 물심양면 인간경영의 진수를 보였다.

가정행복코칭센터 대표 이 수 경

이 형 우 | 마이다스아이티 대표이사

- 부산대학교 기계설계학과 학사
- 포스코건설 MIDAS 센터장
- 남상공회의소 13, 14대 위원
- 한국공학한림원 건설환경공학분과 위원
- 부산대 기계공학부 겸임교수
-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 산업포장 수상(대통령 이명박)
- 제6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기술혁신상 금상표창(중소기업청)
- 제27회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수상(과학기술부)



❖ 사람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기업, 기술로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신과 회사 그리고 세상 모두를 행복하게 하려는 인본주의 철학을 전사적으로 교육

❖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생'에 무게를 두는 회사,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아실현의 욕구를 이해하고 조직원들의 정신적인 성장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회사

심사평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기업은 많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사람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저성장 시장구조로 인하여 기업들은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전략'의 과제를 떠안게 되면서, 이익을 쫓기 위해 인간존중 경영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구성원들이 일하는 보람을 느끼는 장소로써 기업의 '업의 본질'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때이며, 그 중심에 마이다스아이티가 있다.

마이다스아이티에게 경영이란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기에, '사람'을 깊이 궁리하는 철학으로 통한다. 사람이 자신의 직업과 일에서 자부심과 열정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을 인간의 본질적 욕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으면 비즈니스는 저절로 굴러가게 돼 있으니 사람을 키우는 데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경영의 목적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많은 기업인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더 나아가 기술로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신과 회사 그리고 세상 모두를 행복하게 하려는 소명의식으로 일하는 회사.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생'에 무게를 두는 회사.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아실현의 욕구를 이해하고 자부심을 일깨워주는 마이다스아이티야말로, 인재경영의 모범이 될 만하다.

'일 공부'저자, (주)더퍼포먼스 대표 류 랑 도

교육부문

김영철 | 동화세상에듀코 대표이사 사장

- (주)고려진생 대표이사
- 한국스포츠문화재단 이사장
- 동화세상에듀코 대표이사 사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지식경영인 최우수기업(교육서비스산업 부문) 대상 수상
- 대한민국 참교육 대상 수상



❖ 한 명의 직원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 기업의 이익을 넘어 직원 인재양성을 핵심 가치로 추구

❖ 세계적인 라이선스 인재교육을 도입하여 입사부터 정년 후까지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 참교육을 실천함.

심사평

동화세상 에듀코는 설립 20년 만에 매출 1,300억 원, 총 200개 지사 및 지점, 4,500여 명의 직원의 중견 기업으로 성장한 교육서비스 종합기업이다. (주)동화세상 에듀코 김영철 대표이사는 ‘직원이 생명이다’라는 생각을 제대로 실천하는 회사로 매출 이익보다 직원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그들을 키우는 것이 곧 회사를 키우는 것이라 생각하는 직원중심, 인간경영의 상징이다.

에듀코가 정작 지향하는 것은 ‘큰 회사’가 아니라 ‘남다른 회사’이다. 그 남다른 이 세상을 자신이 꿈꾸는 동화 같은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김 대표의 인간중시의 경영철학과 맞물려 있다.

에듀코는 기업의 이익을 넘어 직원 인재양성을 핵심가치로 추구한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라이선스 인재 교육을 도입하여 입사부터 정년 후까지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전 직원이 인재 양성의 혜택을 받도록 직원들의 교육체제와 복지체제에 훨씬 많은 노력과 비용을 쏟고 있다.

또한 ‘진솔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직원의 가능성을 서로 높인다’는 경영철학을 실천하여 아래 여성 가족부 선정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고 있다. 경기도 안성에 동화타운 연수원 건립, 가족 친화적 문화를 제공하고 1사 1촌 자매결연, 소년소녀 가장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동화 같은 세상을 만드는 회사’란 타이틀은 직원들의 잠재력을 믿고 그 가능성을 열기 위해 부모이자 집사를 자처하는 김 대표와 같은 리더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제는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직원 행복의 실현을 통해 사업영역을 확대 학원과 무역, 금융, 관광, 건설 사업을 아우르는 종합 글로벌 1조 기업으로 뻗어나가고, 100년 장기기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뛰고 있다.

피플그룹 이사장 가재산

윤 동 한 | 한국콜마 대표이사 회장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서울대 경영대학원 수료, 수원대 경영학 석·박사
- 대웅제약(주) 부사장
- (사)한국상품학회 회장
- 영남대학교 재단이사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수석부회장



❖ 주주, 고객, 임직원과의 상생을 경영방침으로 삼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법을 실천하며, 기업간 상생의 발전 위한 책무를 다함

❖ 유기농경영 철학으로 기업의 외형을 키우는 것보다는 직원을 성장시키고, 창업 후 매년 빠지지 않고 신입 사원을 채용하고 육성하고 매년 매출액의 5%를 R&D에 투자하는 미래형 기업

심사평

한국콜마는 회사 이름이 생소하지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다수의 화장품을 생산하는 회사다. 한국콜마는 성장과 복지면에서 세계적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창업 후 25년만에 매출액 8,300억의 중견회사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의 바탕은 윤동한 회장의 '유기농 경영' 철학에서 바탕이 되었다.

자생력으로 땅에서 식물이 성장하듯이 직원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경영'이라는 것이다. 한국콜마는 기업의 외형을 키우는 것보다는 직원을 성장시키고 꿈꾸게 하는 것이 기업가의 책무라는 생각으로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을 하여 훌륭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경영환경을 탓하며 투자와 채용을 기피하는 것이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매출액의 5%를 R&D에 투자하고 창업 후 매년 빠지지 않고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육성하는 한국콜마는 중견중소기업의 모범이라 할 수 있다.

(주)POP Consulting 대표컨설턴트 김 남 민

특 별 상

김 병 일 |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

- 제10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재정경제원 국민생활국장
- 국회예산결산특위 수석 전문위원
- 기획예산위원회 사무처장
- 기획예산처 차관
- 금융통화위원
- 기획예산처 장관
- 한국국학진흥원 원장



❖ 정통 관료 출신으로서 은퇴 후 숭선수범이 되어 청렴한 공직자 상을 스스로 만들어 감

❖ 선비정신을 기반으로 해 물질에 집착하는 우리 사회를 비판하고 퇴계선생의 삶을 배우며 배려와 공감의 문화 확산과 인성교육을 통해 봉사하는 삶을 실천

심사평

김병일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은 많은 분에게 옛 선비의 삶이 얼마나 향기로웠는지 전하고자 하면서 공직에서 물러나 본인이 안동에서 선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서울대 사학과 출신으로 1971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통계청장과 조달청장, 예산처 장관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이지만 2005년 관직에서 물러난 그는 한국국학진흥원장을 지낸 뒤 현재 경북 안동의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을 맡아 선비문화를 알리는 역할에 몰입하면서 공공기관장 출신으로서 청렴한 공직자들의 상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

선비정신을 기반으로 해 물질에 집착하는 우리 사회를 비판하고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부인과 제자들을 존중했던 퇴계의 사례를 들어 배려와 공감 문화의 확산을 강조하면서 희생적 삶으로서 직접 제자수련에 힘쓰는 모습에서 인간경영의 모델이 되신 분이다.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장 만 기

CEO MEMBERSHIP SEMINAR

40년 역사의 정통 CEO멤버십



No.1 HDI경영자연구회

대한민국 각계 리더와 경영자간 대화의 장, 사회이슈세미나

매월 1주 목요일 07:00 / 연12회 개최

소공동 롯데호텔



No.2 CEO지혜산책

기업 경영의 핵심! 지혜 공유의 장, 경영세미나

매월 2주 목요일 07:00 / 연12회 개최

소노펠리체컨벤션(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No.3 CEO인문향연

경영철학을 완성하는 CEO의 마음공부, 인문세미나

매월 3주 목요일 18:00 / 연12회 개최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호텔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만나는 사람을 바꾸세요”

HDI 인간개발연구원
HUMAN DEVELOPMENT INSTITUTE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 139 대흥빌딩7층(양재동4-3)
TEL. (02) 2203-3500 FAX. (02) 2203-1974
www.khdi.or.kr

